

2015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	㉱

1. [출제의도] 인간의 특성 파악하기

제시문의 할머니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식당을 운영하여 나눔을 실천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동기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이해하기

(가)는 공동체주의, (나)는 자유주의이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며, 개인은 소속된 자아로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반면 자유주의는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타인이나 공동체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공동체를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자유주의만의 특징이다.

3. [출제의도] 공자와 순자의 사상 파악하기

같은 공자, 을은 순자이다. 공자는 인의(仁義)를 바탕으로 한 덕치(德治)를 주장하였고, 순자는 인위(僞)를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는 예치(禮治)를 주장하였다. 한편 공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군주의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4. [출제의도] 흄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흄의 주장이다. 흄은 이성이 행위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감정만이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감을 통한 사회적 유용성을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보았다.

5. [출제의도] 불교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스승은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은 삼독(三毒)이며, 팔정도(八正道)를 수행하면 삼독이 사라진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6.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을 가진 사람은 악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은 행위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품성적 덕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한편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행복을 위해 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적용하기

소크라테스는 무지(無知)를 자각하고 참된 앎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중용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유가에서 강조하

는 인의(仁義)를 인간의 자연성을 해치는 인위적 규범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마음을 비우는 심재(心齋)와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는 좌망(坐忘)을 통해,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제물(齊物)에 도달할 것을 강조하였다.

9. [출제의도] 주자와 왕양명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주자, 을은 왕양명이다. 주자는 성이 곧 이치[性即理]이며, 격물을 외부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왕양명은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이며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격물(格物)을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자와 왕양명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存天理去人欲] 수양을 강조하였다.

10.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 사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같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릴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주체적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플라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플라톤은 현상계를 넘어서 이성으로 파악된 이데아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을 수용하였으며 이성보다 신앙을 통해 최고선인 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케인스의 사상 이해하기

(가)는 케인스의 주장이다. 케인스는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할 것을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고자, 맹자,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고자, 을은 맹자, 병은 노자이다. 고자는 성무선 악설을 주장하였고,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사단(四端)을 지닌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노자는 예(禮)와 같은 규범이 소박한 자연성을 해친다고 보았고 시비(是非)를 분별하지 않는 삶을 지향하였다.

14. [출제의도] 벤담과 칸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벤담, 을은 칸트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칸트는 의무에 따르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보았다. 칸트는 의무의 준수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단칠정론 이해하기

(가)의 같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정(情)이 사단과 칠정으로 구별되며,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이이는 정은 칠정뿐이고,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측면을 가리키는 별칭이며,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하였다.

16. [출제의도] 근대 윤리에 대한 현대 덕 윤리의 비판 이해하기

같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중시하는 근대 윤리, 을은

현대 덕 윤리의 입장이다. 현대 덕 윤리는 근대 윤리를 비판하면서 행위보다는 행위자에게 주목하여 공동체적 삶 속에서 유덕한 성품을 함양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현대 덕 윤리의 입장에서는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하는 근대 윤리에 대해 행위자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동학과 원불교의 공통점 파악하기

같은 동학의 최제우, 을은 원불교의 박종빈이다. 최제우는 동학을 서학과 구분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였다. 박종빈은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최제우와 박종빈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현재에서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였다.

18.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의 공통점 파악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학파는 몸의 불안과 마음의 고통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ataraxia]를 추구하고 개인주의적인 쾌락주의를 지향하였다. 반면 스토아학파는 정념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지향하였다. 한편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 모두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 태도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였다.

19. [출제의도] 민주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비교하기

(가)는 민주 사회주의, (나)는 마르크스주의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폭력 혁명에 반대하고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인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보며, 프롤레타리아의 폭력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생산 수단이 공유되는 평등한 공산 사회가 도래한다고 본다.

20. [출제의도] 정약용의 심성론 이해하기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성(性)을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로 보았다. (나) 퍼즐의 가로 낱말 (A)는 사성제, (B)는 도덕이므로 세로 낱말 (A)는 '사덕'이다. 정약용은 사덕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